노혜정양 桑港向発

13日 上午 父親 노태용씨와 함께 手術은 15日 스탠포드大学病院서

(하와이—속보) 심장절개 수술을 앞둔 노혜정양(5) 이 13일 상오 9시30분 유나이티드항공편으로 상항으로 떠났다.

부친 노태용씨와 함께 트랩을 오른 혜정양은 15일 상항에 있는 스탠포드 메디칼 센터에서 대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할 예정이다.

이날 공항에는 노양의 어머니와 3형제들, 그리고노양이 다니고 있는 프리스쿨의 선생, 카이저의료재단 의 관계자등이 출영나와 노양의 성공적인 수술을 기 원했다.

노태용씨는 호널루루 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본보 하와이지국관계자로 부터 그동안 교포각계에서 모은 성금을전달받고 『교포여러분의 눈물겹도록 고마운 뜻에 보답키 위해서라도 꼭 성공적으로수술을 마치고 건강한 딸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양이 거주하는 지역의 팔라마 한인회에서는지난주 성금 50달러를 본보 하와이지국에 기탁해왔다.

이로써 혜정양돕기 운동에는 현재 현형 8 명, 성금은상항에사는 이수경양의것을 합쳐 모두 6 백50달러가 모여졌다.

▲선물과 레이를 한아름안은 혜정양이 13일수술을 받기위해 상항으로 떠났다. 오른편은 아버지 노태용씨.

学生이教授를告訴 D学点에不滿품고

(하와이) 하와이대학의 한 대학원 여학생은 교수가 D 학점을 준것에 불만을 품고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해 화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젠·이본느·넬슨양은 지난 5 월 마지막 학위를 받기 위해 시험을 치뤘는데 자신은 필요한 공부를 다했으나 시험에 패스를 못해 학위를 따지 못했다는것.

넬슨양은 고소이유로 그D 학점을 준 교수의 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외에대학에서 학위에 실패한 학생에 대한 보험제도가 없다는것도 들고있으며 학위를 땄을 경우 벌었을 지도 모를수입의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入学할 子女들은 健康診断 마쳐야

(하와이) 이번 가을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자녀를 가진 학부형들은 어린이들의 입학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마쳐야한다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외에 건강요구조건에 합당하지 못하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와이 주법에 의한 건강조건은 어린이들이 신체검사와 튜벤크린 테스트나 흉곽 X-Ray, 홍역, 류벨라, 디 프테리아, 백일해등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와이주에서는 2 년전부터 어린이들이 이와같은에방주사를 의무적으로 맞도록했는데 작년에는 94명의어린이가 조건에 따르지 못해 임시적으로 학교에 입학할수가 없었다.

개학기가 다아올때에는 병원이 만원을 이룰것이 예상돼 미리 건강진단을 맞도록 함이 『현명할 것같다』.

박규식씨 昇進就任 KAL호텔 総支配人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의 전 관리부장 박규식씨가 최근 총지배인으로 승진 취임했다.

서울상대 출신인 박씨는1970년 한진그룹 감사실에 투신한 이래 방계회사인 한일개발 경리과장, 동사 총무과장등을 지내다 74년4 월 와이키키 리조트호텔을 인수할 당시부터 관리부장직으로 일해왔었다.

法的地位에 難関 州政府予算 삭감

(하와이) 주정부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법적지원 봉사소는 15일부터 새로운 케이스를 맡을수없게되었으며 변호사의 수도 줄일수밖에 없다고 하와이 법적지원협회가 밝혔다.

동협회 회원들은 올해의 6십 7만 5천달러의 예산중15만 6천 5백달러가 삭감됨으로써 하와이섬과 몰로카이섬의 사무실이 새로운 법적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으며하와이주 전체를 통해 약13 명의 변호사를 줄여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

예산이 삭감되기전에는 개인의 힘 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1 만 5천명의 주민들에게 법적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1 만 4천명에게만 법적인 문제를 도울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創立32周年만찬회

코리언·골프클럽, 1백50여 会員들 한국일보 토너멘트에대한施賞式도

(하와이) 코리언골프클럽은 10일저녁 와이키키 리조트호텔 에서 창립32주년 기념만찬회를 가졌다.

1 백50여 회원및 가족이참석한 가운데 칵테일 파티에 이어 한국식 만찬을 즐긴이날의 모임에서는 새로 선출된바있는 회장단 소개가 있었으며 지난 6월에 실시한 『한국일보 토너먼트—36홀』에 대한 시상식도 아울러 거행됐다.

이날 소개된 새회장단과수상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신임회장단〉▲회장—해리최▲부회장—제리김▲부회장—둑정 2세▲재무—존홍▲감사—오건창

▲해리최 신임회장

〈한국일보 토너멘트 수상자〉▲1 위—제임스노하라▲2 위—지미구▲3 위—제임스김▲4 위—스탠미스오

〈기타수상자〉▲에이스어브에이스—콜강, 샘슨리▲회장트로피—로랜스강, 동식배▲76년도 스포츠맨 상—이윤희총영사.

▲한국일보 토너멘트에서 우승한 제임스 노하라씨 (우)가 우승트로피를 받고있다.

副作用많은 낙찰계

在伯僑胞社会의 私金融役割 실효 남의돈 챙겨潜跡하는 不祥事많아

(브라질) 재백교포사회발전과 기업성장의 기초가되어왔던 한인사회의 낙찰계는일부인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먹구름에 휩싸이고있다.

1973년 1월 북·남미주지역을 떠들썩하게했던 태명호사건을 비롯하여 그상처가 채 아물기도전에 일어난 허모씨의 파산선고, 박모씨의 도주사건등으로 주춤했던 한인사회의 낙 찰계는 지난해10월 일명 옥이엄마(남편 : 박기병)의 계돈갈취 잠적사건 으로 또다시 커다란 소용돌이속에 휘말 리게 되어었다.

그러나 그후 성실하고 근면한 교포들이 이를 꾸준히 이끌어 오고있으나 지난 5월 30일 재백교포 이진하씨가자신이 모집, 이끌어오던 계를 깨뜨리고 또한 자신이 가입되어있는 계를 모두떼어 (8만달러상당)심야에 전가족과 함께 잠적했음을 전해듣자 재백교포사회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이번 이진하씨 사건으로인해 약 2만 달러 상당액을손해보았다는 김모씨는, 약 8년동안의 피땀흘려모은 전재산이 하루아침에 날라갔다면서 이러한 철면피같고, 동족을 못살게구는 자들을 처벌할수 없겠느냐면 면서 정말 우리 한인으로써만 맺어져있고 한인의 기업성장에만 쓰여졌던 유일한 금융수단이었던 "낙찰계"가 이제는 일부 동족의 피를 말리는 행위로인해 무너져가고 있음을 애석히 생각하며 무일푼으로 이주해와서 이 낙찰계가 있음으로 인해 어떤민족보다도빠라고 말했다.

이전시회에는 신선한 농작물 전시외에 놀이와 께임등도 마련했는데 여러가지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 사람이 많았다.

예를들면 케리·헤니라는사람은 1 백 4초만에 13개의달걀을 먹어치움으로써 1974년 영국인이 세워놓은 기록을 깼고 그밖에 우유마시기 바나나, 아이스크림, 밥먹기 등에서도 하와이주 신기록이 속출됐다.

해롤드·브랙킨씨는 14·9초만에 반갤런의 우유를 들여 마셨고 폴·아싱군(12) 은 12초만에 12개의 바나나를패트릭·가니코군(17)은 16초만에 6온스의 아이스크림을먹어치우는등 히안한 재주(?)를 보였다.

재백교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원주민의 돈까지 갈취하여 원주민에게 한국인의 인상을 더럽힌 박모씨는 현재 브라질의 남쪽지방"뽀르또 알레그리"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졌으며 채권관계로 인해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없으면 못주는것이지 어쩌하느냐?" 고 반문 하더라고 그를 만나본 피해자가전하면서 혀를 찼다.

현재 재백교포사회에는 약 2 백여개의 낙찰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백교포중에는 최고로 51개나 가입한 사람도 있으며 매월교포 사회에서움직이는 계돈만도 약 1백만달러에 달 하고 있다.

Korean Inn.開業 僑胞 박춘석씨 가

(하와이) 교포 박춘석씨가 3559 Waialae Ave.에 식당 「Korean Inn」을 개업했다.

갈비, 매운탕, 육계장등한식일체를 구비하고있는 이곳에는 결혼피로연등을 할수있는 연회석도 마련하고있다.

☎737—6059

한바디샵代表入院 営業은継続한다고

(하와이) 한스 바디샵(825 Sheridan St)대표 한태희씨가 심한 중이염을 앓아14일부터 2 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되었다.

그러나 한스 바디샵에서는 기술진을 더 보강해서 종전과 다름없이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955—7938.

自動車修理工모집 三星자동차工場서

(하와이) 삼성자동차수리공장(대표·다니엘리)에서는 공장확장을 앞두고 경험있는 매캐닉, 바디맨, 페인터를모집하고있다.

유경험자는 월 1천 2 백달 를 보장하겠다고.

☎949—7773

한국軍 現代化 가先決

한국国防力 強해질때 美軍철수 노엘·게일러提督, 8月30日退役

(하와이) 노엘·게일러 전 태평양기지 총사령관은 8 일 『미국은 북괴의 침략도발을 막는데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력으로 북괴와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때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게일러·제독은『지금은 구체적 인 숫자나 계획을 들어 주한미군의 입장을 밝힐수는 없으나 철군시기는 아마도 앞으로 4 ~ 5 년후의 일이될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태평양기지 총사령부의 대변인은 12일 게일러제독이 오는 8월30일 하오 1시 Hickam 공군기지에서 신임모리스 와이스너 총사령관에게 총사령관기를 이양하게 되며 게일러제독은 퇴역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엘·게일러제독

달걀먹기 世界記録 州,農業展示場에서

(하와이) 맥킨리하이스쿨에서 열린 제 4회 하와이주 농업전시회(State Farm Fair)는 성공적인 인파로 인해 하루를 더 연장하고 11일 폐막했다.

하와이주 농업지부 연합회장인 하디·허치슨씨는 『전체 관람자는 10만명에 달했다』고 밝히고『이숫자는 작년보다 4 만명이나 증가한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한국」프로

7월17일(토)밤 9시 ~11

시KNDI(1270KHZ— AM)

9 : 00—음악, 한국일보주간종합뉴스

9 : 30—라디오극장『회 중시계』전편(한국방송공사제공)

9 : 50—이주일을 보람있게—박대희목사 담당

10 : 00—생활영어—이상억박사 담당

10 : 20—퀴조상품—한국일보 1개월 구독권)

10 : 25—희망음악

10 : 55—공지사항, 교회점소식

하와이 支局 (808)955-2292

하와이 지역 主日礼拜 안내

7월18일(일요일)

교회명 (가나다순)	설교자	설교제목	시간	주소	전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박대희	풍요한 삶	상오 9 : 30 하오 7 : 00	1639 Keaaumoku St	536—7244
밀리라니한인교회	김정구	기드온의 신앙	상오11 : 00 하오 7 : 00	Recreation Centers No 1 Miliani Town	538—7246
순복음하와이교회	안희철	바울의 자랑	하오 1 : 00 하오 7 : 00	2305 University Ave. KPT컴뮤니티홀	841—7113
심누가성공회	죠지리	교리해설과 미사	상오 9 : 30	48 N. Judd St.	533—3481
제일감리교회	이문규	예수의 제자	하오 1 : 00 하오 7 : 00	961 Io Lane	845—5569
제칠일예수재림교회	김인곤	심는대로거두리라	매주토 상오 9 : 30	1415 Makiki St	487—1170
펄하버한인침례교회	심영건	생명의 완전한보장	상오11 : 15	3121 Salt Lake Bl	488…8060
하와이한인카톨릭교회	박문수	동정	정 오	1701 Willder Ave	949—8608
한인 호널루루교회	윤상범	복음신앙과무사고운전	상오10 : 45	1775 S. Berenania St	734—0052
호널루루한인기독교회	김중기	믿음의시금석(2)	상오10 : 30	1832 Liliha St.	536—4755

브라질에 韓国무용붐

이연실舞踊研究所学生들로超満員 道具와의상등을韓国서들여오기로

(브라질) 재백교민들 가운데 자녀를 갖은 가정은 별안간 한국고전무용붐이 불어이곳의 유일한 이연실(25)무용연구소가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재백교민사회에 고전 무용붐이 일어난것은 지난4 월23일 "미스코리아" 재브라질대표선발을 할때 "미스베이비"와 "미스 리틀"도 함께 선출했는데 이날 이곳에 출전한 어린이들이 거의가 이연실무용연구소생들이고 특히 무용연구소 어린이들의 춤이 관중의 인기를 독차지해 교민사회에 소문이 퍼져 4 ~19세 까지의 딸을 가진 부모들은 요즘 한창 이곳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재 이곳 무용연구소의학생수는 유년부(7 세이상) 10명, 중등부(7 ~13세)13명, 고등부(15~20세)10명, 부인반(20세이상)이 10여명 으로 총43명이 이양의 지도 하에 각반이 매일 1 시간씩 고전무용에 열을 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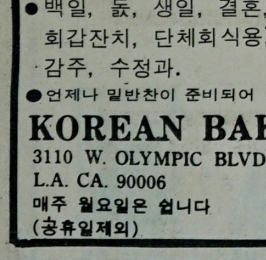
특히 브라질태생이 7 명이나돼 이들은 무용도 배우지만 한국어에도 많은 발전이 있어 부모들은 일거양득이라 열성이 대단하다.

이양은 항상 고국의 춤을 남미천역에 알려 한국의 얼을 심는것이 소원이라면서 한국에서 갖고올 도구와 의상으로 이곳 쌍파울에 무용소를 갖고 앞으로 전 브라질은물론 남미전체에 순회 공연을 가져 한국의 얼을 심겠다"고 포부를 말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고전무용을 지도하고 있는 이연실씨.

〈홍성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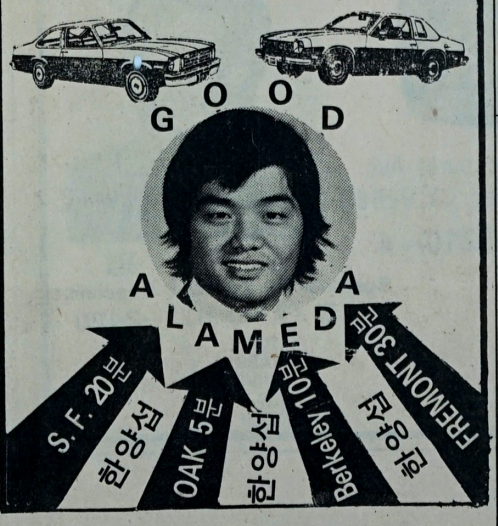
당신의 모습을 새롭게!
미용린다·변
뉴욕 국제미용대회 한국대표로 선발되었으며 그간 경험과 새로운 스타일의 미용법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멋진 모습을 가꾸어 드립니다.
● POLA 화장품 취급
388—8522(집)
274-5211, 275-3691
파마 · 헤어컷
염색전문
남·녀 스타일
각종미용상담
461 N. BEVERLY DR.
BEVERLY HILLS, CA.



● 백일, 돐, 생일, 결혼, 회갑잔치, 단체회식용, 감주, 수정과.
● 언제나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KOREAN BAKERY
31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공휴일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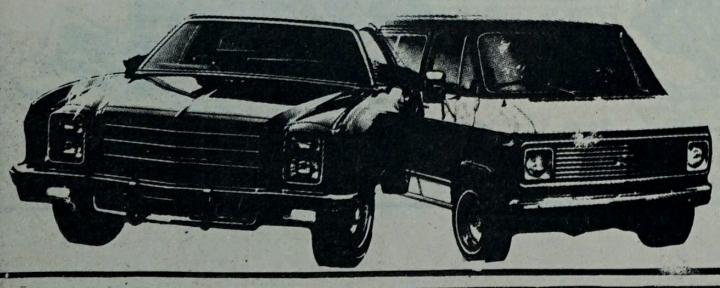
자동차 수리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 몇 번씩 다시 가도 만족하게 못고치는 차. … 그러시면 CHANG'S GARAGE를 찾아 오세요. 다른곳에서 못 고치는 차를 완전히 수리합니다.
전기와 산소 용접 · 자동차 수리전문
※외국차와 BODY는 일하지 않음. 여기는 GAS STATION이 아님.
SMOG 증명 $ 5.00
MASTER MECHANIC 장 희 준
732—8222
2616 W. JEFFERSON BLVD. L.A.
아침 7시~6시 까지. 주일에는 휴업

GM
GOOD CHEVROLET
Chevrolet
1630 PARK ST. ALAMEDA CA.
TEL : 522—9221
20년의 전통과 600여대 각종차량을 구비하고
성실한 봉사! 저렴한 이자!
철저한 After Service를 약속드립니다.



부산중고등학교동창회
하 기 야 유 회
일 시 : 1976년 7월 25일(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랜쵸팍(Pico & Motor Ave.)
식사 및 음료수 상품은 본회에서 제공합니다.
연락처 : 김종관(387-3875) 정인주(467-2097)
주병용(487-3470)
(새로오신 회원은 꼭 연락을 바랍니다.)
회장 김 종 관 알림.

승용차에서 벤추럭까지
CHEVROLET회사의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Warren Biggs의 MIKE YANG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CHEVROLET
Warren Biggs
MIKE YANG
205 So.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ephone: (213) 381-1211

광고회사
AD-TV 에이디·포는 한인사회 유일한 광고회사입니다. 당신의 사업에 필요한 광고 일체에 대해서 상의하여 주십시오. 광고물 제작에서부터 대행에까지 완전업무를 수행합니다.
신문광고 제작대행 / TV광고 필림제작 및 슬라이드제작.
3932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Tel:380-7771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